

‘2014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한책 토론회



지난 27일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서 열린 2014년 한책 토론회에서 공지영의 '높고 푸른 사다리'를 읽은 참가자들이 '이 땅의 사다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누군가의 '사다리'가 된다는 것은...

‘한책’ 공지영 ‘높고 푸른 사다리’ 절대자와의 사랑 등 주제 대화 ‘무등산’ 등 동반 서적도 관심

전남대학교가 지난해 시작한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는 지역에 독서 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년간 함께 읽을 ‘한책’ 선정 투표를 시작으로 한책 선포식, 작가 초청 한책 토크 콘서트, 토론회 등을 통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박석무의 ‘유배지에서 온 편지’를 선정했고, 올해는 공지영의 ‘외롭고 높은 사다리’를 함께 읽었다. 또 매년 전문가들이 선정한 후보작 10편(표 참조) 역시 독서에 관심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 “사다리는 오를 수 없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해주는 우리 삶의 희망과도 같은 매개체다.”

‘2014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의 한책 토론회가 지난 27일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서 학생과 시민, 교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문과 백현미 교수의 사회로 ‘이 땅의 사다리’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녀의 사랑, 절대자와의 사랑 등 다양한 모티브를 화제 삼아 대화를 나눴다.

한책으로 선정된 공지영의 ‘높고 푸른 사다리’(한겨레출판)는 이방인 성직자들의 삶과 한국전쟁 기간 중 피난민을 구조한 선장 마리너스 이야기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이들의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 등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올해의 시간을 돌아보게 했다.

참가자들은 한책 외에도 후보도서에도 남다른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 후보도서에는 정유정 ‘28’, 박재희 ‘3분고전 2’, 구본준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 신순옥 ‘남편의 서가’, 함민복

◆ 2013 한책

책이름	저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박석무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공선옥
남한산성	김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인생	최인호
살아야 하는 이유	강상중
소금	박범신
태연한 인생	은희경
나는 꽃도독이다	이시백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강세형

◆ 2014 한책

책이름	저자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
28	정유정
3분고전 2	박재희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	구본준
남편의 서가	신순옥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함민복
무등산	박선홍
쓰잘 데 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도정일
여덟 단어	박용현
인생수업	법륜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박선홍 ‘무등산’, 도정일 ‘쓰잘 데 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박용현 ‘여덟 단어’, 법륜 ‘인생수업’이 선정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특하다’ 독서클럽 80개 가운데 선발된 4개의 독서팀이 참여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花BOOK’의 정민숙 씨, 자산중 학부모 독서회 ‘책향’의 최문숙 씨, 다양한 사람들의 책모임 ‘소수정예’의 허원범 씨, 상무지구 독서클럽 ‘책테크’의 김요환 씨는 한책을 토대로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했다.

허원범 씨는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맞물려 사회 전반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때맞춰 수도원생활과 수사 이야기를 배경으로 다룬 ‘높고 푸른 사다리’가 한책으로 선정돼, 시민들의 기대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민숙 씨는 “이 작품은 수도원이라는 종교적 공간 내에서 수사들의 여러 번뇌와 방황을 필진하게 형상화한다. 그렇다고 종교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와 사랑을 소재로 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요환 씨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높고 푸른 사다리’와 비교해 의미있는 분석을 내놨다. 김 씨는 “두 작품 주인공 모두 성장통을 겪지만 ‘데미안’의 싱클레어는 자기 내면의 길을 발견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반면, ‘높고 푸른 사다리’의 정요환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설의 구성과 효과에 대한 대화도 흥미를 끌었다. 최문숙 씨는 “주인공 정요환이 10년 전 일을 신부가 된 현 시점에서 돌아보는 것은 ‘도대체 왜?’라는 물음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게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제목 ‘높고 푸른 사다리’ 의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절대자를 향한 사랑이자 사랑으로 귀결되는 다리”(정민숙 씨), “이성과의 사랑에서 벗어나 소명을 따르는 삶”(허원범 씨), “높은 곳으로의 연결고리뿐 아니라 낮은 곳으로의 연결고리”(최문숙 씨), “고통과 시련을 통한 자아찾기”(김요환 씨) 등 다양한 의미로 풀이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우수작 '그대로 멈춰라'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수상작 한자리에

내년 3월까지 야외갤러리

유·스퀘어문화관은 지난해 초 유·테라스에 야외 갤러리를 오픈했다. 문화관과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야외갤러리를 오픈 한 뒤에 공간을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들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동안 수상작들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내년 3월까지 유·스퀘어문화관 야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제 1~4회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 26점이 전시된다.

‘추억과 행복’, ‘세상을 밝혀줄 미소’, ‘점핑(Jumping), 찬란한 순간’ 등 주제를 담고 있다.

유·스퀘어문화관 관계자는 “이번 회고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이 재조명되고, 사진 공모전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커졌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예가 이돈홍 선생 ‘대한민국 미술상’ 본상 수상

오승우 화백 ‘원로작가상’

‘제8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미술 발전에 힘쓴 지역의 원로 서예가인 이돈홍 선생 등이 본상 및 특별상을 수상한다.

한국미술협회와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5일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진도 출신 한국화가 강지주 화백, 보성 출신 문인화가 박종희 화백, 광주 출신 서예가 이돈홍 선생 등이 본상을 수상한다. 또 화산 출신 서양화가 오승우 화백이 특별상 원로작가상의



서예가 이돈홍 오승우 화백

영예를 안는다. 이 밖에도 보성출신 배동환 작가, 장흥 출신 서정민 작가 등이 장려식

미술상 수상 작가로 선정됐다. 한편 심숙자, 윤명동 화백 등도 이날 본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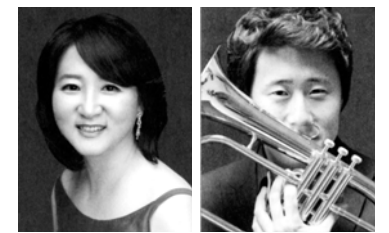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피아노와 트럼펫 신수경·성재창 듀오 연주회...6일 전남대

호쾌한 트럼펫과 감미로운 피아노가 만납니다. 피아니스트 신수경과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 듀오 연주회가 6일 오전 11시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도레미’ 초청 연주회로 마련됐다.

피아니스트 신씨는 서울대와 일리노이 음대를 거쳐 인디애나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성재창씨는 서울대와 독일 뮌헨 음대 등에서 수학했으며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니 부수석, 핀란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거쳐 현재 충남대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



신수경씨 성재창씨

이기도 한 알반의 ‘노르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망각’, 쇼팽의

‘미뉴에 왈츠’, 거슈윈의 ‘Someone to watch over me’ 등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기타리스트 황민웅씨도 함께한다.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